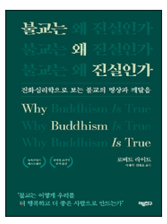
이번주 신간은… 〈불교는 왜 진실인가〉 로버트 라이트 지음/마음친구 펴냄/1만 8천원



이 책은 진화심리학에 관한 로버트 라이트의 기념비적 저작인 〈도덕적 동물〉(1994)서 시작해 그 스스로 명상 수행을 실천하면서 세계의 명상가, 과학자와 교류한 과학적이고 영적 여정의 정점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불교를 종교적 신앙이 아닌 심리학과 철학, 과학 등 합리적 탐구의 대상으로 접근하려는 이, 명상이 어떻게 우리를 삶의 미망과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 이를 위한 책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6~2/12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6	정진 2 (고통을 이겨내는 힘)	지광스님	능인출판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성전스님	마음의숲
3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8	일묵 스님이 들려주는 초기불교 윤회 이야기	일묵스님	불광출판사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설봉어록 (운문종과 법안종의 사상적 원류)	청두종인	담앤북스
5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10	불교는 왜 진실인가	로버트 라이트	마음친구

"선의 핵심… 가둔 나를 열고 갇힌 나를 석방하는 것"



3일만에 깨치는 야포 禪

석호 지음/연화 펴냄/1만 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4살에 동화사 의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 책의 저자 석호 스님은 대강백 학봉 스님으로부터 경학을 전수받고 '이뭐꼬' 화두 정진을 해왔다.

3일만에 깨치는 야포 선?

제목을 보니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지례 경계심이 든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고 책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내 고개가 끄덕여 진다. 3일이란 숫자적 외침은 수행의 시작과 중간, 끝을 의미하며 누구든지 편하게 접근하라는 저자의 배려이다. 또한 '야포'란 저자가 사는 통영 욕지도의 동네 이름이다. 지명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흥미롭다. '야포'의 원래 지명이 '불무개'인데, 저자는 엉뚱하게도 '불무개'서 다른 의미를 끄집어 냈다. 한자를 붙여 불(佛) 무(無) 개(開)로 해석한 것이다. 이 말은 '부처가 없으면 열린다'는 의미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불무개'는 내가 법좌에 올라 자주 설하던 말이자 평소 법을 물으러 오는 이에게 내어 주는 주요지침"이라며 "이 표지가 내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운명처럼 그때 알아차렸다"고 소개한다.

24살에 동화사 의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 책의 저자 석호 스님은 대강백 학봉 스님으로부터 경학을 전수받고 '이뭐꼬' 화두 정진을 해왔다. 특히 대구 경북 일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며 '작은 기적' '하늘다이아몬드' 등 5권의 저서를 펴냈으며, 2년전인 2017년에는 남해안 통영의 먼 섬 욕지도 토굴로 거처를 옮겨 깨달음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저자의 30여년 수행 경험이 오롯이 녹아있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지침서이다. 스님은 선의 핵심을 가두고 있는 나를 열고 갇힌 나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우리를 가두고 닫는 존재를 가린 그 무엇은 다름 아닌 각자의 교육, 습관, 환경 등에 길들어진 아집"이라며 "열려야 할 곳은 열게 하고 닫혀야 할 곳은 닫게 만들며, 구부려야 할 곳은 구부러지게, 퍼져야 할 곳은 퍼지도록 차별을 두지 않는 존재의 활동이 내 자신을 열리게 만든다"고 소개한다.

'야포', 저자가 사는 욕지도 동네명
준비, 구성, 수확 등 행법 체계화
간화선과 묵조선 장점만 결합시켜

책은 주제에 비하면 무겁지 않다. 책은 깨달음이란 〈왜?〉라는 의심서 시작해 〈아하!〉라는 느낌으로 답을 얻게 구성됐다. 여기서 그 답은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보는 원동력이 되지만 일상서 자기 역할을 잃어 버리면 깨쳤다고 해도 완성된 깨달음은 아니라는게 스님의 주장이다. 그 예로 스님은 말한다. "가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후 전법을 포기하고 바로 열반에 들었다면 부처님의 위대함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석호 스님은 '깨닫기는 쉽지만, 깨달음의 완성이 어려울 뿐'이라며 책 속에서 깨닫는 법과 상태, 깨달은 후의 조치인 보림, 그리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법까지 친절히 설명해 놓았다. 너무 친절해서 어긋날 수 있다며 자못 염려하는 스님은 "깨달음은 이성적 이해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감성의 번쩍임, 즉 직관만 사용될 뿐이므로 스스로의 경험으로 얻지 않으면 안된다"고 책 속에서 수차례 경고한다.

저자는 깨달음 방법인 '야포선'을 준비작업->구성작업->수확작업 등으로 나누어 행법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 행법의 실행 항목인 내려놓기->아무것도 하지 않기->바라보기의 구체적 방법 및 경계를 여러 가지 재밌는 예화와 함께 하루하루 일정별로 기술해 놓았다. 스님은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서 바로 깨달음을 얻은 교시가처럼 진지하게 행법대로만 실행하면 3일만에 분명히 깨치게 된다'고 스님은 말한다.

야포선 수행 개략을 말하면 간화선 장점인 열정과 묵조선 장점인 차분함을 결합한 것으로써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부정의 질문에 집중해 감각과 그 대상은 물론 무의식에 절대적으로 자리 잡은 부처나 깨달음 등의 상대마저도 없애버리고 오롯이 '있는 그대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깨달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의 활동이 활발발(자유자재)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죽음이 된다며, 스님은 〈지금 바로 여기〉가 유토피아라는 깨달음 후의 활동방법인 '표시없는 표시'까지 제시하며 결론 맺고 있다. 마지막 제 3장 부터는 일정별 세부 지침을 전개해 놓았다.

'야포 선' 3일 행법은?

1일차 행법=〈내려놓기〉의 첩경은 '본래 무소유'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출가'라는 명분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부정의 질문과 온종일 씨름해야 한다며 그 방법인 바른집중(사념 없애기, 좋은 마음가짐, 좋은 몸가짐)을 실제 상황에 맞춰 설명해 놓았다.

2일차 행법=〈아무것도 하지 않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명제의 성립에 대한 얘기와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할 수는 없지만 도달 가능한 법을 여러 재미있는 예화를 곁들여 소개한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궁극적 자기 존재임을 조심스럽게 밝힌다.

3일차 행법=〈바라보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도달한 선정 상태를 깨우는 '적정한 쇼크'의 순간을 직시함으로써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되어 주객이 없는 평등한 세계의 모습을 〈아하! 그렇구나〉라는 느낌으로 알게 된다며 추리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바라봄의 경로를 말한다. 그 〈바라보기〉는 다시 깨달음 후의 활동인 깨달음의 완성, 〈바라밀〉 과정에서도 쉼 없이 작동하는 것으로 써, 깨달은 자와 중생의 같은 본성인 〈무구 무애 원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 〈공경 비움 연민〉을 실천하게 하는 중심이 된다며 깨달음 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고 그런 활동도 활동이 아닌 '표시 없는 표시'를 이루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밝힌다.



불교개설

조계종 포교원 편찬/1만 5천원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의 생생한 원음 담은 불교 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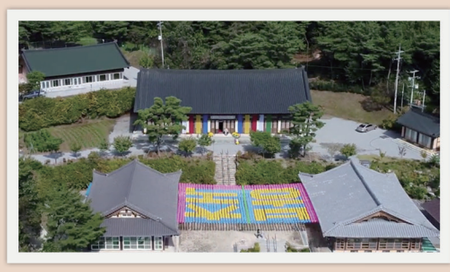
가치관이 다양하고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행동하고 보편적 자비를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책은 독자와 함께 이 질문을 공유하면서 진리의 길을 찾아가고자 한다. 삶과 죽음, 직업과 노동, 돈, 성, 생명, 생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마음 다스리기, 슬기로운 언어생활, 잘 사는 법 등 현대인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제별로 나누어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기존의 불교 개론서들이 건조한 이론 설명에 치중하였다면,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가질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숫타니파타〉 〈맛지마 니까야〉 〈쌍윳따 니까야〉 〈디가 니까야〉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화엄경〉 〈법구경〉 〈법화경〉 〈금강경〉 〈전심법요〉 〈완릉록〉 〈마조록〉 등 적절한 경전과 선어록의 말씀을 인용해 설명함으로써 읽다 보면 자연스레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든다. 무엇보다 입문자들이 쉬 접하기 어려운, 부처님과 여러 역대 선지식들의 생생한 원음을 담아냄으로써 독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숙고하며 실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큰 미덕이다.

불교는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불교와 불자들이 맡은 역할과 사명을 잘 보여줄뿐더러 이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으로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조계종 신도를 위한 불교대학의 필수교재로 기획된 이 책은 불교가 어떤 종교적 가르침을 지니고 있으며, 신행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잘 정의해준다. 타 종교와는 다른 불교만의 특징을 보여주며, 동시에 불교의 지향점과 신행관을 분명히 제시해줌으로써,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김주일 기자

도서출판 문젠 은 농선 대원 선사님의 뜻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대원 선사님은 모든 중생이 구제받을 때까지 정법만을 깨닫기를, 정법만을 말하기를, 정법만을 가르치기를 서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도서출판 문젠은 대원 선사님의 뜻에 따라 정법을 바르고 넓게 유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사님의 지도 하에 선사님이 역저하신 불교 경전, 선문들과 저술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이들, 더욱이 최상승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육조정맥종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전경

전국 구매처

국제 정맥선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리개길 86-178
☎ 031-534-3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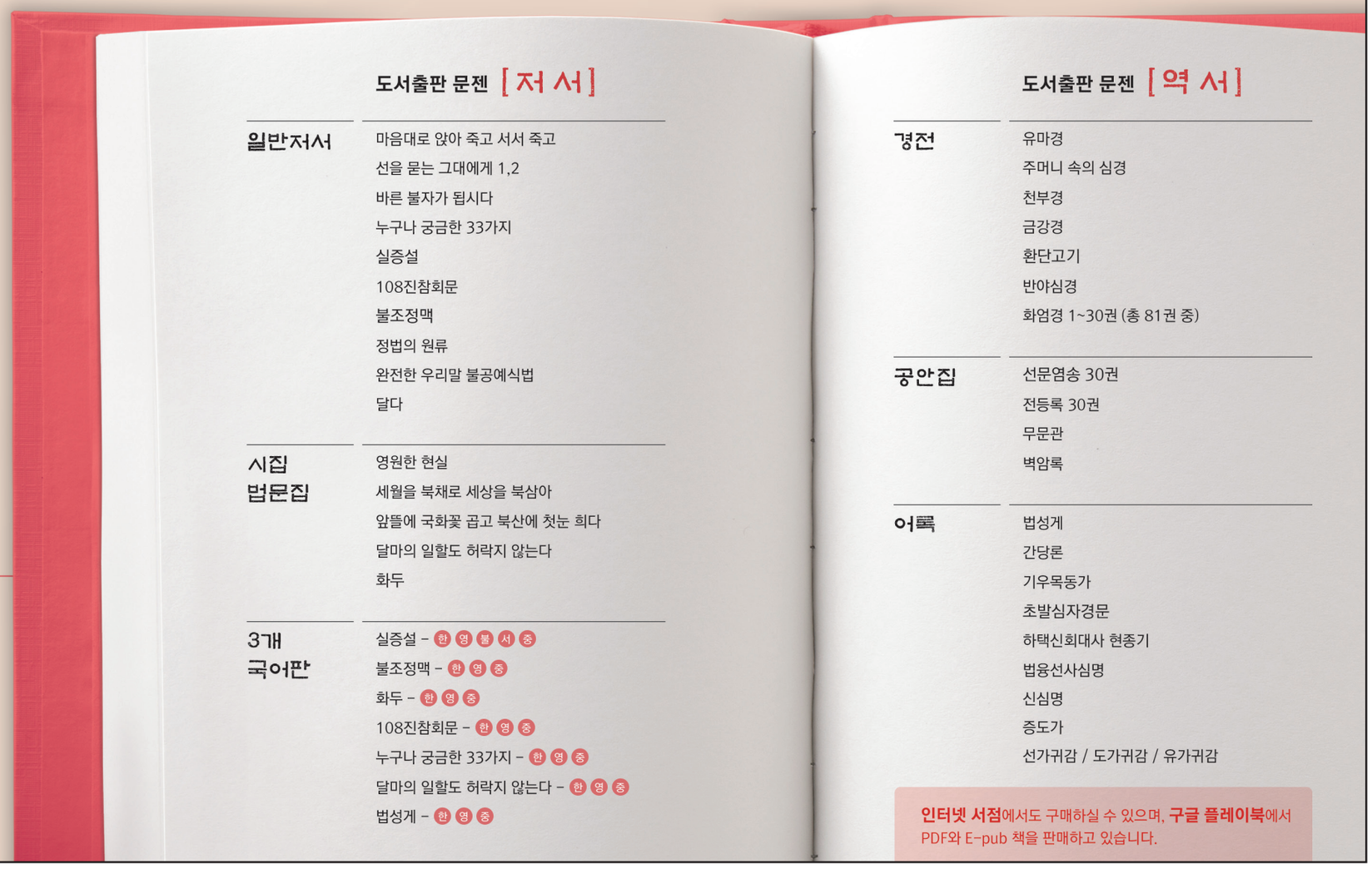
청도 정맥선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산 50번지
☎ 010-4543-2460

부산 정맥선원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14번길 10 대륙코리아나 212호
☎ 051-503-6460

포천 정맥선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리개길 86-123
☎ 031-531-2433

광주 정맥선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광암길 34
☎ 062-944-4088

해남 정맥선원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계길 132-98 중정마을
☎ 010-8938-2438



도서출판 문젠 [저 서]

일반저서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실증설
	108진참회문
	불조정맥
	정법의 원류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달다
시집 법문집	영원한 현실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화두
3개 국어판	실증설 - 한 영 불 서 중
	불조정맥 - 한 영 중
	화두 - 한 영 중
	108진참회문 - 한 영 중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한 영 중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한 영 중
	법성게 - 한 영 중

도서출판 문젠 [역 서]

경전	유마경
	주머니 속의 심경
	천부경
	금강경
	환단고기
	반야심경
	화엄경 1~30권 (총 81권 중)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
	무문관
	벽암록
어록	법성게
	간당론
	기우목동가
	초발심자경문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법융선사심명
	신심명
	증도가
	선가귀감 / 도가귀감 / 유가귀감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북**에서 PDF와 E-pub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